

◎ LPGA 내추럴채리티 우승 임성아는 누구?

AG 金... 프로 2년차 유망주

<아시안게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플로리다스 내추럴채리티 챔피언십에서 '역전불허'의 명성을 쌓아온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에 역전 우승을 거둔 임성아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될 성 부른 떡잎'이었다.

에 LPGA 투어에 입성, 2년만에 정상 밟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재미삼아' 골프에 입문한 임성아는 '여자골프사관학교'로 불리는 세화여중, 세화여고를 거치며 기량이 급성장했다.

은 2001년. 그해 한국여자오픈에서 공동 7위에 오른 데 이어 한국여자프로골프 타이거폴스토오픈에서 쟁쟁한 프로 선수들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해 골프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화려하기만 했던 아마추어 때와 달리 프로의 높은 벽은 쉽게 넘지 못했다. 2004년 겨울 LPGA 켈리파인스 쿨을 공동 10위로 합격해 2005년 시작한 루키 시즌 역시 '질박의 성공'에 그쳤다. 공동 3위 한 차례를 포함해 '톱 10'에 네 차례 이름을 올려 상금랭킹 43위(28만7천달러)라는 성적표에 만족해야 했다.

'탱크' 최경주 시즌 첫 '톱10'

셀휴스턴오픈 6위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시즌 최고 성적을 올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최경주는 2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험벌의 레드스톤골프장 토너먼트코스(파72·7천457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셀휴스턴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4라운드 합계 9언더파 279타로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올해 8차례 대회에서 소니오픈 공동 13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던 최경주는 다음달 4일 개막하는 한국프로골프 SK텔레콤오픈 타이틀 방어를 앞두고 시즌 첫 '톱10'에 입상하는 상승세를 탔다.

이날 아이언샷 그린 작중률이 67%로 다소 처진 최경주는 하지만 4라운드 종합 아이언샷 정확도에서 공동 3위(76.4%)에 올라 SK텔레콤오픈 2연패에 푸른 신호등을 켰다.

우승컵은 첫날부터 내리 선두를 질주한 스티어트 애블비(호주)에게 돌아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소렌스탐 울린 임성아 "나를 기억하라"

● 내추럴채리티 상보

임성아는 3라운드를 소렌스탐에 1타 뒤진 2위로 끝낸 뒤 "상대가 소렌스탐이지만 겁먹지 않고 내 식대로 플레이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24일(한국시간) 4라운드에서 소렌스탐과 동반 플레이에 나서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임성아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보낸 것은 경기 막판.

임성아와 소렌스탐을 1타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나선 커가 15번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범해 자멸한 뒤 어부지리로 다시 공동선두에 복귀한 임성아와 소렌스탐의 운명은 17번홀(파4)에서 엇갈렸다.

소렌스탐이 친 티샷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OB구역으로 사라졌다. 티박스에서 세번째 샷을 친 소렌스탐은 네번째 샷을 낚 1.5m에 붙어 보기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퍼트가 빗나가면

서 임성아에게 2타차 선두를 내줬다. 임성아는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안전 위주의 플레이를 펼친 끝에 맞은 1.5m 버디 기회를 멋지게 성공시켜 우승을 자축했다.

15번홀부터 17번홀까지 3개 홀 연속 버디 위기를 짜릿하게 넘긴 임성아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다 떨렸다"면서 "사람들이 소렌스탐을 꺾은 나를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태경 대회新

종별선수권...110m허들 13초 89

박태경(광주시청)이 2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 35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남일반 110m 허들경기에서 허들을 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태경(광주시청)이 제35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박태경은 2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 일반부 110m허들에서 13초 89(중전기록 14초 15)를 기록, 자신이 지난해 34회 대회에서 세웠던 기록을 경신하며 1위로 골인했다. 박태경은 지난해 11월말 일본 유학길에 올라 6개월간 일본 사토르 코치의 조련으로 자세를 교정해 한국신기록이 기대됐으나 올 첫 대회의 부담감으로 대회신 기록에 만족했다.

박태경은 "지난해 일본 유학을 통해 골반과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중심을 높이고 상체를 높이면 스피드가 늘었다"며 "현재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29일 히로시마 오다 마키오기념 초청 육상대회에서 한국신기록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계적 푸르른 양산지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화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2006년 4월 25일 화요일

감격의 순간 임성아가 2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LPGA 내추럴채리티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18번홀에서 우승퍼트를 한 후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 내일 개막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를 석권하고 있는 한국 남자군의 산실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06년 시즌이 오는 26일 개막한다.

개막 무대는 KLPGA 홍석규 회장이 대회장소와 대회 타이틀스폰서십을 제공한 휘닉스파크클래식. 26일부터 3일간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골프장(파72·6천264야드)에서 총상금 2억원을 내걸고 치르는 이 대회는 올해 여자프로골프 판도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3년째 한국 무대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송보배(20·슈페리어)가 지난해 LPGA 멤버 배정은(21·CJ)에게 내줬던 상금왕 타이틀을 탈환을 위해 첫

대회부터 우승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2년차 박희영(19·이수건설)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또 박희영과 작년 내내 신인왕을 다했던 최나연(20·SK텔레콤) 등도 시즌 첫 우승을 놓칠 수 없다는 각오다. MBC ESPN이 2라운드, MBC가 최종 라운드를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KLPGA는 개막전 휘닉스파크클래식을 시작으로 국민은행이 4개 대회를 신설하는등 올해 20여개 인팍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Living 47 Years' (살능 47년!) featuring a large golden number '47' and promotional text for a 47th anniversary event.